



COVID-19 Business Report

코로나19로 인한 거시경제적 영향 및 대응방향

March 2020
삼성KPMG 경제연구원



Contacts

삼성KPMG 경제연구원

김규림
이사

Tel: +82 2 2112 4089
gyulimkim@kr.kpmg.com

곽호경
책임연구원

Tel: +82 2 2112 7962
hokyungkwak@kr.kpmg.com

조민주
선임연구원

Tel: +82 2 2112 7589
minjoocho@kr.kpmg.com

최연경
선임연구원

Tel: +82 2 2112 7769
yeonkyungchoi@kr.kpmg.com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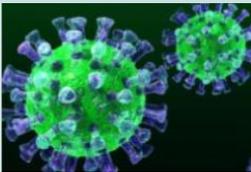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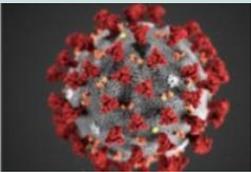
Contents

	Page
I.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거시경제 주요 현안	3
II.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거시경제 영향 및 파급효과	13
III. 코로나19 대응 방향 가이드	21

주요 내용 》 코로나19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공식: 코로나19 또는 COVID-19)은 사람과 동물에 감염될 수 있는 유전자 크기 27~32kb의 RNA 바이러스로,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 특히 고령의 환자, 기저질환 환자,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높은 치사율을 가진 것으로 알려짐

사스·메르스·코로나19 비교

구분	사스 2002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 2015년 중등호흡기증후군	코로나19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병원체 이미지			
종류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장소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우한
유행시기	2002~2003년	2015년	2020년
감염 매개체	박쥐·사향고양이	박쥐·낙타	박쥐(추정)
잠복기	평균 2~7일, 최장 14일	평균 5~6일, 최장 14일	평균 4~7일, 최장 14일
재생산지수*	2~5	0.4~0.9	1.4~2.5
확진자(사망자)	약 8천여명(774명)	2천 500명(약 875명)	663,926명(30,880명)**
치료제(백신)	현재까지 없음	현재까지 없음	현재까지 없음
치사율	약 10%	약 20~40%	4.65%**

코로나19 상세 정보

- 정의: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
- 법정감염병: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 병원체: 사람과 다양한 동물에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서 유전자 크기 27~32kb의 RNA 바이러스
- 잠복기: 1~14일 (평균 4~7일)
- 전파 경로: 기침·재채기 등 비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 등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 증상: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 다양하게 경증에서 중증까지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드물게 객담,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증상)
- 치사율: WHO는 초기 코로나 치사율을 1% 수준으로 추산했으나, '20년 3월 4일 3.4%로 상향 조정

Source: 질병관리본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재생산지수가 높을수록 전파력이 강함

**2020년 3월 29일 04시 전세계 현황 기준

주요 내용 》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팬데믹 공식 선언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급증함에 따라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함

코로나19 관련 일정

- '19.12.12 중국 우한서 원인불명 환자 첫 발생
- '20.1.9 우한 위건위, 첫 사망자 발표 및 원인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표
- '20.1.20 한국서 첫 환자 확진
- '20.1.21~30 미국·유럽 등 전세계 확진자 발생
- '20.1.23 중국, 코로나19 진원지 우한 전격 봉쇄
- '20.1.27 한국정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 '20.1.29 중국 전역에서 확진 발생
- '20.1.30 WHO, 코로나19 국제보건 비상사태 선포
- '20.2.19 대구 신천지예수교회, 대량 감염환자 발생
- '20.2.20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 한국인 첫 사망자 발생
- '20.2.23 한국 위기경보 '심각'으로 격상
- '20.3.11 WHO, 코로나19에 팬데믹 선언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WHO, 결국 3번째 팬데믹 선언

초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2월을 기점으로 한국·이탈리아 등을 중심으로 전세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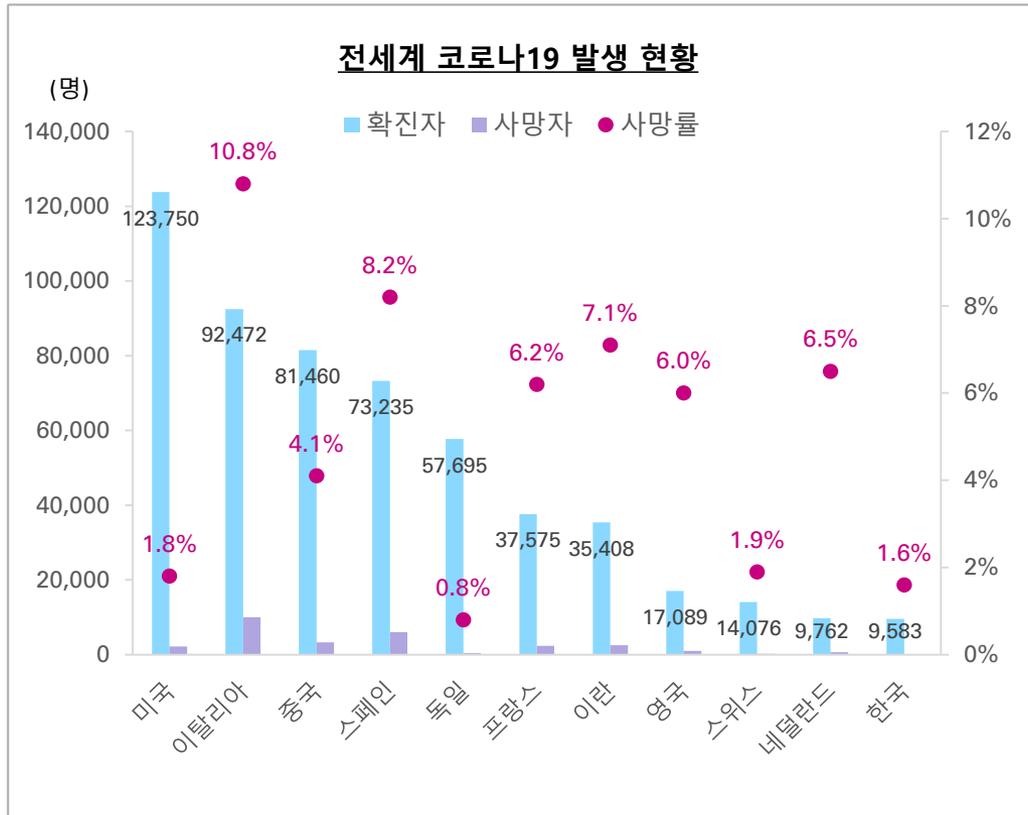
- 2020년 1월 중국의 명절인 춘절을 기점으로 중국 내 유행인구가 급증하여 진원지인 후베이성 외 중국 전역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
- 중국 당국은 이에 따른 조치로 후베이성을 봉쇄하는 강경책을 실행하였고 춘제 연휴기간 연장, 기업의 생산활동·외출 제한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시행함
- 그러나, 3월을 기점으로 중국을 넘어 유럽, 미국, 남미, 호주 등으로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자 세계보건기구(WHO)는 3월 11일 감염병 위험 수준 최고 경계단계인 팬데믹을 선언함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중국·한국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였으나 3월 말 현재 유럽·미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참고] 전세계 코로나19 발생 현황

코로나19는 중국을 넘어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20년 3월 29일 4시 기준 미국(123,750명), 이탈리아(92,472명), 중국(81,460명), 스페인(73,235명), 독일(57,695명), 프랑스(37,575명) 순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



- **중국:** '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바이러스가 발견된 뒤, 현재까지 중국에서만 8만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됨. 3월 말 현재 확진자 증가세가 진정되는 추이를 보임
- **미국:** '20년 3월 21일 확진자가 하루만에 5,010명을 넘어서며 본격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으며, 이는 중국의 하루 최고 확진자 발생 비율을 넘어서는 수치임
- **EU:**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특히, 이탈리아의 누적 사망자 수가 중국을 넘어섰으며, 의료체계가 열악한 남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어 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한국:** 대다수의 확진자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3월 13일을 기점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됨

Source: Wolrdometers.info,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20년 3월 29일 4시 기준

주요 내용 》 코로나19 조기 진정은 어려울 전망

코로나19는 기후 및 습도의 영향을 일부 받기는 하지만 각 국가의 공중보건 수준 등 다양한 요인이 확산에 영향을 미침. 또한 변이 가능성이 높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 상 치료제 개발이 어렵고 백신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코로나19의 조기 진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기후 및 습도의 영향

코로나19는 사스와 마찬가지로 계절적 패턴을 가진 바이러스일 가능성 높으나 계절 영향을 추측하기 어려움

- 일반적으로 기후는 바이러스의 확산과 생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미국 메릴랜드대 연구팀: 코로나19 발병은 주로 기온 5~11도, 습도 47%~49%의 조건을 유지하는 춥고 건조한 북위 30~50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분석
- 그러나 계절 영향만으로 전세계 발생 추이를 설명하기 어려움
- 덥고 습기가 많은 싱가포르는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으며, 현재 한여름인 중남미에도 확진자가 증가세에 있음

기후 외 자가격리 등 각국의 방지 정책, 각 국가별 공중보건 수준, 의료 수준, 국민의 협조 등 변수가 많음

- 코로나19 확산은 바이러스 숙주(인간)의 행동패턴, 각 국가별 공중보건 수준, 국민들의 위생상태, 면역력 등 많은 변수에 영향을 받음
- 코로나19 관련 계절 변동에 대한 데이터 부족으로 전문가들도 미래에 어떤 추세로 확산될지 예측이 어려움

Source: 질병관리본부,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치료제 및 백신의 개발

- 코로나19 치료제는 아직까지 없으며,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에 집중
- 변이가 빈번하고 빠른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치료제 개발 어려움

치료제 개발현황

- 해외: 리토나비르(Ritonavir)·로피나비르(Lopinavir) 병행요법 임상평가 진행 중
- 미국: 렘데시비르(Remdesivir)·인터페론(Interferon) 병행요법 임상연구 중
- 중국: 글루코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 임상연구 중
- 한국: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항체 치료제 개발 시스템 활용하여 치료제 개발 추진 중

-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은 임상·비임상 시험 및 승인과정이 요구되므로 1년 이상의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백신 개발현황

- 전염병예방혁신연합(CEPI):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12.5억 달러 지원
- 미국: 핵산백신인 메신저 RNA백신, DNA백신 개발 착수
- 호주: 합성항원 백신개발 착수
- 한국: 국립보건연구원을 중심으로 DNA 백신, 바이러스 벡터기반 백신, 바이러스 유사입자 백신 개발 추진 중

주요 현안 》① 팬데믹 선언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 직후 글로벌 경기침체(Recession)에 대한 공포감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였으며, 이후 급등·급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이 높아짐

팬데믹 선언에 따른 주요 국가별 금융시장

국가	팬데믹 선언 직후('20.3.12) 글로벌 증시 전일 대비 등락폭		
한국	코스피지수 - 3.87%	코스닥지수 - 5.39%	코스피200 - 3.65%
미국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5.86%	S&P 500지수 -4.89%	나스닥지수 -4.70%
EU	독일DAX30 -12.24%	독일EURO STOXX -12.4%	프랑스CAC40 -12.28%
아시아	상해종합지수 -1.52%	선전종합지수 -2.2%	닛케이225지수 - 4.41%

Source: 미래에셋대우,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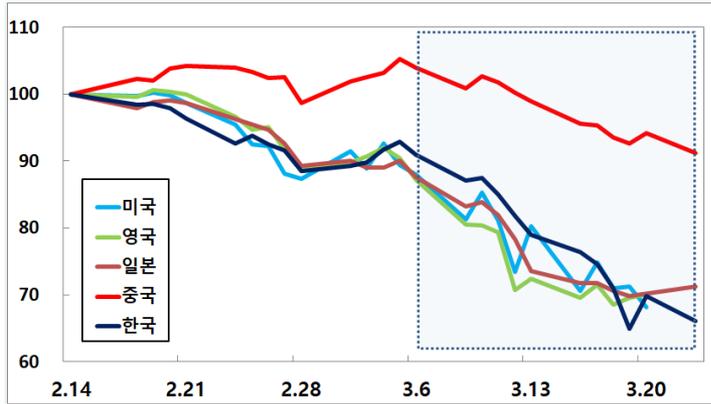
공포 확산에 따른 글로벌 변동성 심화

전세계 팬데믹 공포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덮치면서 주요국의 증시가 일제히 폭락함 - 안전자산인 금·미국채 가격 동반 하락 - 이는 위험회피 성향이 극도로 커지면서 금과 국채를 팔아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판단됨
외국자본 한국시장 이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증시를 이탈하는 외국자금 증가 •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3.5원 상승한 1,206.5원에 마감 - 경기 침체 공포 속에 달러 강세를 나타내는 그린백(Greenback) 현상 심화
글로벌 변동성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가 진정되기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큼 - 팬데믹 이후 불확실성으로 전세계 증시가 급등·급락을 반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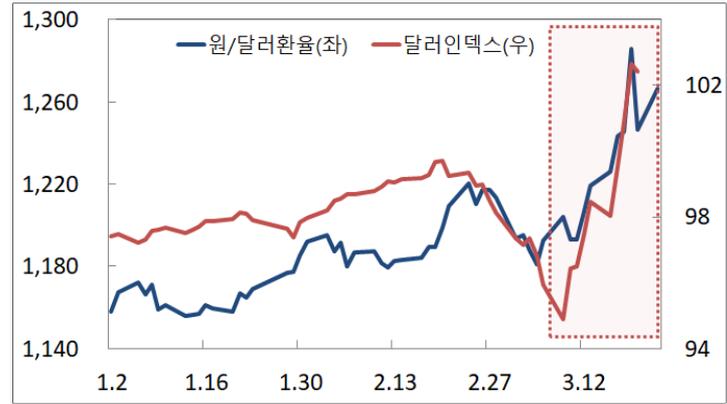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참고] 코로나19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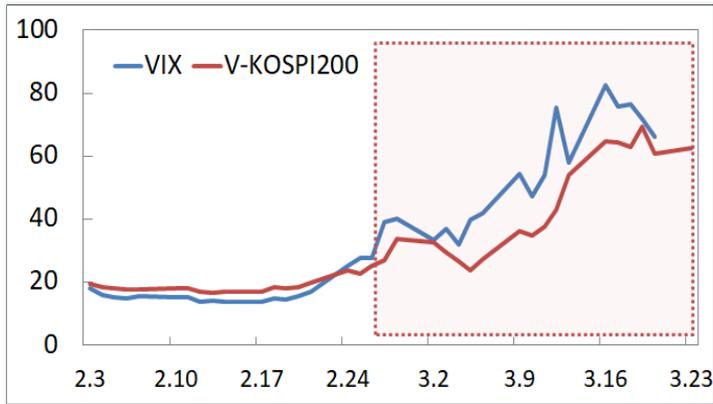
글로벌 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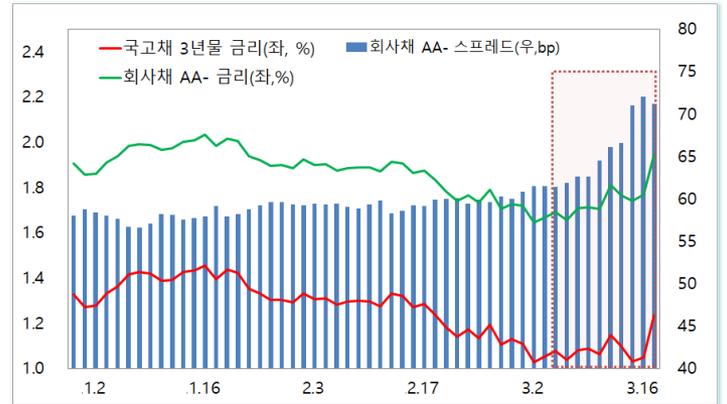
환율 추이



변동성 지수 추이



회사채 스프레드 추이



Source: 금융위원회,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주요 현안 》② 코로나19의 글로벌 경제 침체 가능성 대두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는 전세계 제조업에 대한 충격 가시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각 정부의 외부활동 금지, 중국의 석유 수요 감소 및 추가 감산 실패로 인한 원유 가격 폭락 등의 여파로 생산·소비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음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침체 이슈 부상

글로벌 공급망 충격 현실화

-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활동 마비로 일부 부품 공급 중단
- 반도체, 자동차, 기계, 화학 등 중국의 공급망 의존율이 높은 업종의 생산 차질 예상·글로벌 기반 공급·유통망 타격 불가피

소비 위축에 따른 수요 둔화

-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국경폐쇄·이동제한조치 등으로 항공·운수·관광·공연·해운·수출 관련 업종에 일차적 타격 발생
- 일상생활은 물론 생산·소비 등의 경제활동 마비로 게임산업, 배달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 위축

원유 가격의 폭락

-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의 석유 수요가 감소하자, 산유국들이 추가 감산을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러시아의 반대로 실패
- 그후 원유 가격이 배럴당 30달러 수준까지 폭락
- 유가 관련 건설·조선, 철강 업종 등에 충격 발생

글로벌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 증가

미국: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2분기 미국의 실업률은 30%로 치솟고 GDP는 50% 급감할 수 있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20.3.22)

유럽: "코로나19 여파로 성장률이 -1% 수준으로 주저앉을 수 있다" *(유럽위원회'20.3.7)*

중국: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 *(블룸버그 데이비드 취 이코노미스트 '20.3.23)*

일본: "일본의 GDP 성장률은 -1.2%가 될 것"

(S&P, '20.3.23)

한국: "코로나19 영향으로 본다면 (1분기 한국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 수 없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20.3.20)

과거의 경제 위기는 주로 '수요' 문제였던 것과는 달리
코로나19는 '공급'과 '수요' 충격을 동시에 발생시켜 전례 없는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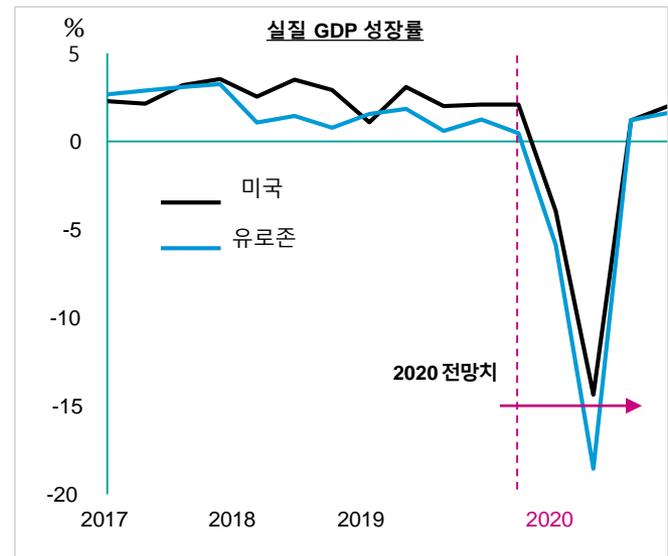
[참고] 전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코로나19는 세계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으며, 영향과 파급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전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예측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음

전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및 조정치



미국·유로존 실질 성장률 예상 추이



- 국제금융협회(IIF)는 '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속 하향 조정
- 종전 2.6% → 3월 5일 1.6% → 3월 19일 0.4% → 3월 24일 **-1.5%**
- OECD(2.9% → **2.4%**), 블룸버그(3.1% → **0.1%**), JP모건(2.5 → **-1.1%**) 등의 기관들이 연이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음

Source: 국제금융협회(IIF),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기존 전망치는 연초 기준, 수정전망치는 '20년 3월 24일 기준

주요 현안 》③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각국 경기부양책 발표

코로나19로 전례없이 경제의 수요·공급 측면이 동시에 위협받는 위기가 시작되어 전세계의 정부·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강력하고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함

전세계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

국가별 중앙은행 경기 부양책 주요 내용		
미국 (FED)	제로금리 재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기금금리: 0~0.25%로 100bp 전격 인하 FED의 파월 의장은 향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분간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을 시사
	양적완화 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제한 양적완화(QE) 시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미국채(T-bond), 주택저당증권(MBS)를 무제한 매입 발표
	기업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 설립 PMCCF*: 4년간 브리지론(Bridge Loan) 제공 SMCCF*: 만기 5년내 투자등급 회사채 매입 MSBLP*: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 지원
	달러 유동성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주요 중앙은행과 통화스왑(Currency Swap) 체결 한국·호주·브라질·멕시코·싱가포르·스웨덴: 600억 달러 덴마크·노르웨이·뉴질랜드: 300억 달러
유럽(ECB)	<ul style="list-style-type: none"> 7500억 유로 규모의 긴급 채권 매입 프로그램 발표 ECB의 올해 자산매입 규모 1조 1,000억 유로로 확대 	
중국(인민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 연4.15% → 연4.05%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출 지원·자금 회수 연장 	
일본(일본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연간 6조 엔 규모의 ETF매입 규모 확대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Prim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y, Second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y, Main Street Business Lending Program

한국의 주요 경기 부양책

한국은행 경기부양책 주요 내용	
기준금리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년 3월 17일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기준: 1.25% → 조정후: 0.75%)
금융중개지원 대출 금리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인하(기준: 연 0.50~0.75% → 연 0.25%) 코로나19 피해기업·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리 큰 폭(연 0.75% → 연 0.25%, 50bp)으로 인하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은행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에 은행채 포함 유동성 공급의 원활화 목적
한국 정부 1,2차 비상경제회의의 주요 내용	
기업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58.3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의 긴급 자금수요 지원(29.2조 원)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자금 지원(29.1조 원)
시장 안정화 장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1조 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자금 운용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20조 원) 회사채 발행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4.1조 원) 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한 유동성 지원(7조 원) 10.7조원 규모이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증권시장 대표하는 지수상품에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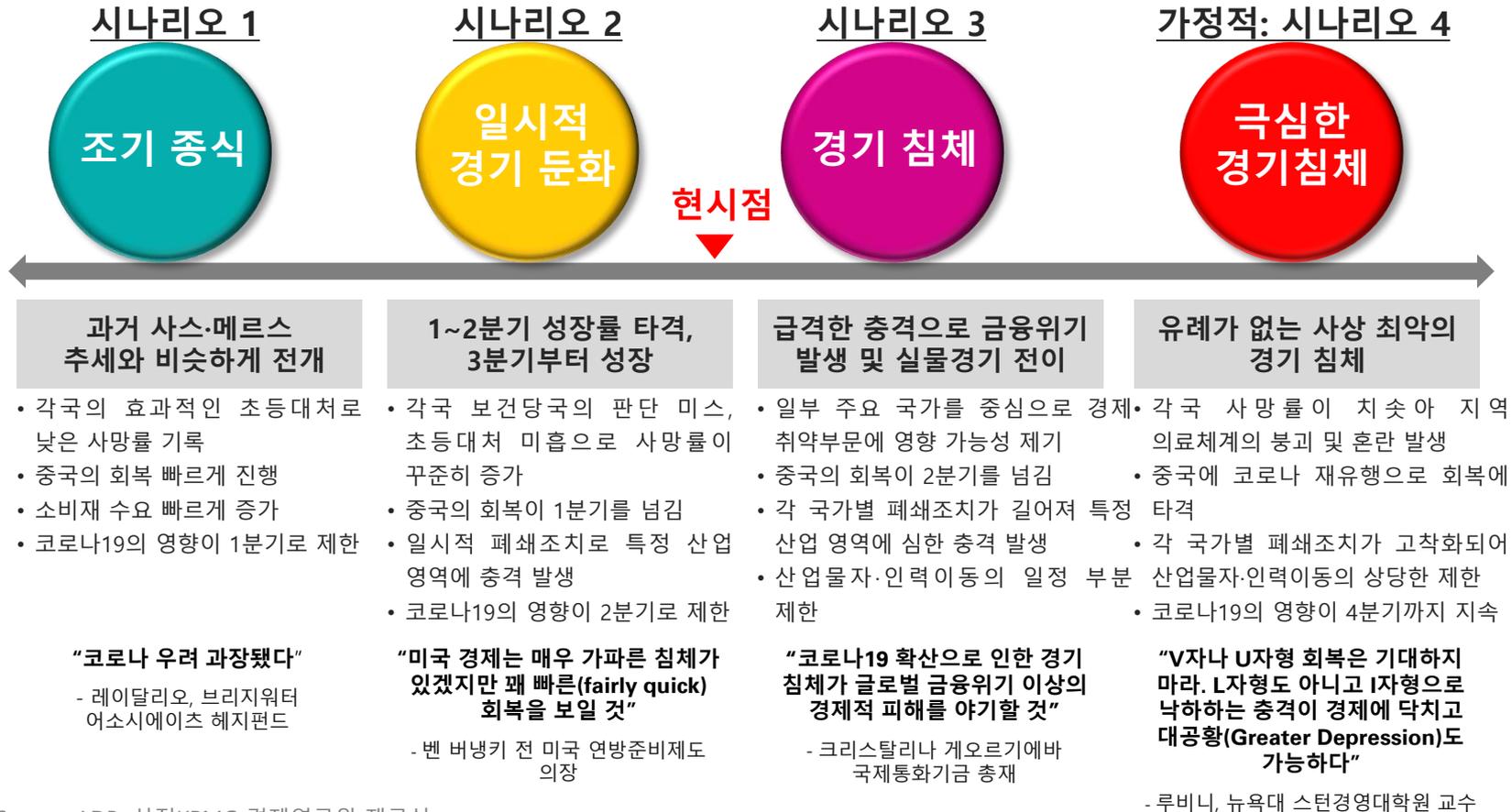
Source: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Contents

	Page
I.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거시경제 주요 현안	3
II.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거시경제 영향 및 파급효과	13
III. 코로나19 대응 방향 가이드	21

전개 방향》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경제 시나리오

코로나19는 ① 조기종식, ② 일시적 경기 둔화, ③ 경기 침체, ④극심한 침체 4개의 시나리오로 전개 가능. 현재 추세로 볼 때 일시적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 중 하나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만, 최악의 경우 극심한 경기침체 수준의 충격도 배제하기 어려움



Source: ADB,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II.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거시경제 영향 및 파급효과

파급 효과》 코로나19 관련 시나리오별 국내 경제 파급효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코로나19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 시, 2020년 한국 GDP는 최대 165.3억 달러(2018년 GDP 기준 1.02% 수준) 감소, 실업자 수 356,400명 발생을 추정함. 호텔·레스토랑 등에서 시작되어 운송·유통, 제조업, 비즈니스·무역 부문으로 부정적 효과 발생 가능성을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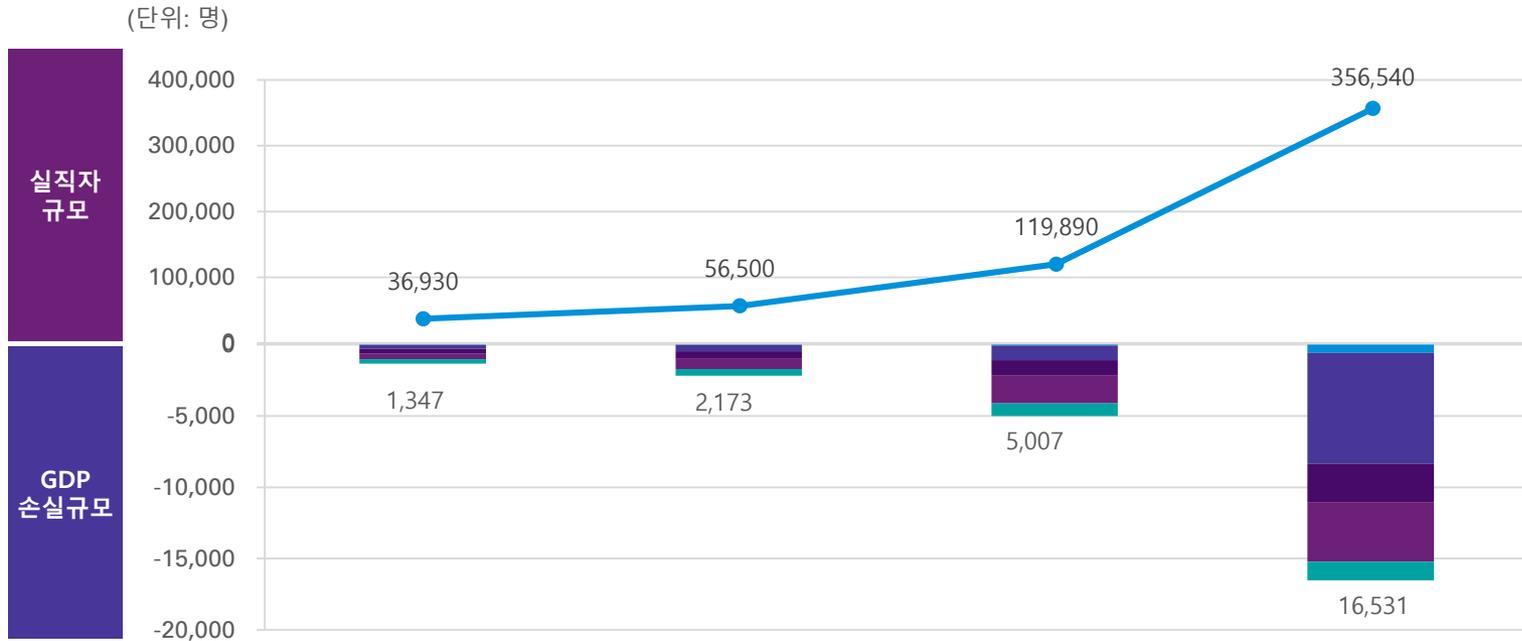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명)

서비스 부문		GDP				서비스 부문		고용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농업·광업	증감률	-0.05	-0.09	-0.17	-1.51	농업·광업	증감률	-0.04	-0.07	-0.14	-1.54
	감소액	19.0	32.8	63.4	575.1		실업자 수	650명	1,130명	2,160명	24,260명
비즈니스·무역·개인/공공 서비스	증감률	-0.03	-0.06	-0.13	-1.00	비즈니스·무역·개인/공공 서비스	증감률	-0.04	-0.07	-0.17	-0.99
	감소액	268.0	442.3	1,030.5	7,787.4		실업자 수	5,650명	9,540명	22,910명	134,510명
호텔·레스토랑 및 기타 개인 서비스	증감률	-0.06	-0.11	-0.32	-0.67	호텔·레스토랑 및 기타 개인 서비스	증감률	-0.05	-0.09	-0.25	-0.53
	감소액	362.6	529.4	1,035.1	2,661.2		실업자 수	14,070명	20,600명	40,440명	112,660명
제조업·유틸리티·건설업	증감률	-0.29	-0.42	-0.83	-2.13	제조업·유틸리티·건설업	증감률	-0.26	-0.37	-0.74	-2.05
	감소액	368.3	701.1	1,985.6	4,184.8		실업자 수	3,700명	7,070명	20,190명	42,220명
운송·유통	증감률	-0.60	-0.85	-1.63	-2.41	운송·유통	증감률	-0.96	-1.35	-2.55	-3.20
	감소액	328.9	467.9	892.8	1,322.4		실업자 수	12,860명	18,160명	34,190명	42,890명
총합계	증감률	-0.08	-0.13	-0.31	-1.02	총합계	증감률	-0.12	-0.19	-0.40	-1.19
	감소액	1,347.2	2,173.4	5,007.4	16,530.9		실업자 수	36,930명	56,500명	119,880명	356,540명

Source: ADB,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참고] 코로나19 시나리오별 GDP 손실 규모 및 실직자 규모 추정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GDP 손실규모 및 실직자 규모 추정



(단위: 백만 달러)



Source: ADB,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GDP 손실 산출액은 2018년 한국 명목 GDP를 기준으로 산출함

II.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거시경제 영향 및 파급효과

파급효과》 국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및 수출 규모 축소 가능

주요 IB의 한국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19년 12월 말 2.2%에서 '20년 3월 26일 0.9%로 하향 조정, 1분기 마이너스 성장 후 2분기 이후 반등을 예상함.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의 수출은 약 3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

주요 IB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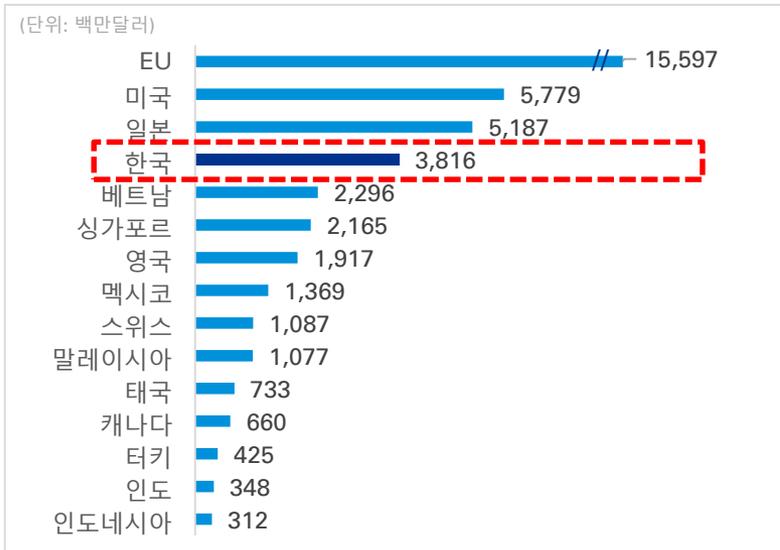
(단위: %)

	'20.1Q	'20.2Q	'20.3Q	'20.4Q	'20f	'21f
Barclays(3.20)	-5.1	-1.2	4.5	6.9	0.8	3.0
BoA-ML(3.21)	-	-	-	-	0.7	1.5
Citi(3.17)	-	-	-	-	1.0	3.2
GS(3.25)	-4.1	-2.5	1.2	5.5	0.3	2.7
JPM(3.25)	-5.0	1.0	2.5	3.5	0.8	2.9
Nomura(3.13)	-13.9	12.2	10.1	4.8	1.4	2.8
UBS(3.24)	-2.0	-1.6	5.3	4.5	1.5	3.2
평균	-6.0	1.6	4.7	5.0	0.9	2.8

- 한국 '20년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19년 말 2.2%에서 '20년 3월 26일 **0.9% (최저 0.3~최고 1.5%)로 하향 조정**
- 주요 IB는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 후 2분기 이후 반등 예상

Source: 국제금융센터, Bloomberg
Note: ()는 개별 기관 전망치 발표일

코로나19에 따른 한국 등 수출 감소치 전망



- UNCTAD는 중국 내 제조업 둔화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500억 달러의 수출 감소 초래 전망
-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은 **약 38억 달러(4조 원)의 수출 감소 추정**

Source: UNCTAD

금융·자본시장》 회사채·여전채 관련 발행 어려움 심화 가능성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이 확산되어 기업 자금 조달 목적의 회사채 및 금융채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기업이나 카드·캐피탈사 등의 여신전문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대한 어려움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됨

금융·자본시장 영향

주식시장 주의	국채시장 주의	회사채 시장 위험	금융채 시장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외 지역에 코로나19 확산됨에 따라 침체에 대한 공포가 팽배 • 폭락을 기록한 후 상승·하락을 반복하는 등 변동성이 커짐 • 특히 은행, 보험, 건설, 조선, 에너지 분야가 큰 하락폭을 보임 • 증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10조 7천억 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 조성, 4월 초 투자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일어나 한국 장단기 국채 금리가 급상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개 금융충격이 발생하면 안전자산 선호로 국채금리는 하락·국채가격은 상승함 • 국채금리 상승은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승을 초래하여 가계의 부담을 증대시키고 소비 여력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주요 자금조달 창구인 회사채 발행규모가 급속히 위축되는 추세를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발행액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 3월 첫·둘째 주 발행규모는 각각 1조 7,558억 원, 1조 4,245억 원을 기록, 전달 대비 절반 이상 축소 • 4월에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6조 5,495억 원)가 크고 만기 연장에 실패할 경우 돈을 갚지 못해 부도 위험성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신전문 관련 금융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카드·캐피탈사의 타격이 예상 • 중·저신용자가 주 여신고객인 카드·캐피탈사의 경우, 위기가 발생하면 대출자산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져 여전채 투자 수요가 급격히 감소 • 증권사가 발행하는 ELS가 폭락하면서 ELS 포트폴리오 중 하나인 여전채에 대한 수요도 감소
<p>“장기 충격에 대한 국내 상장기업 대응방안 필요”</p>	<p>“공개시장운영 및 국채발행계획 수정을 통한 채권금리 안정화 필요”</p>	<p>“기업 자금조달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국책은행의 지원 필요”</p>	<p>“채권시장안정펀드 등을 통해 여전채를 매입하여 유동성 공급하는 방안 검토 필요”</p>

기업》코로나19 장기화 시 기업 타격 불가피

'20년 2월 전 산업에서 전월대비 기업경기실사지수는 하락한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 시 글로벌 공급망 교란, 대면 서비스 기업의 영업중단 지속, 기업 자금시장 위축 등 기업 경제활동 위축이 불가피함

국내기업 경기실사지수(BSI) 현황

BSI 실적 감소 상위 10개 업종			
산업구분	'20.1	'20.2	감소폭
전산업	75	65	-10
제조업	76	65	-11
비제조업	73	64	-9
전자·영상·통신장비	89	71	-18
자동차	74	56	-18
음료	81	64	-17
의복모피	67	52	-15
의료·정밀기기	83	69	-14
기타제품, 담배	64	51	-13
수출기업	85	72	-13
가죽·가방·신발	51	39	-12
금속가공	65	54	-11
대기업	83	72	-11

Source: 한국은행,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 BSI): 경기 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 및 예측과 계획의 변화 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

코로나19 장기화 시 기업 부문 영향도 점검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 중국의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발생
-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조 기업에 충격이 예상됨

대면 서비스 위주 업종의 타격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들의 외출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호텔·관광·항공·요식업 등 대면 서비스 중심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심각한 타격이 발생함

기업 자금 시장의 위축

- 소비 위축으로 기업 매출의 감소 및 자금시장의 위축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운영자금 현금흐름에 대한 압박이 심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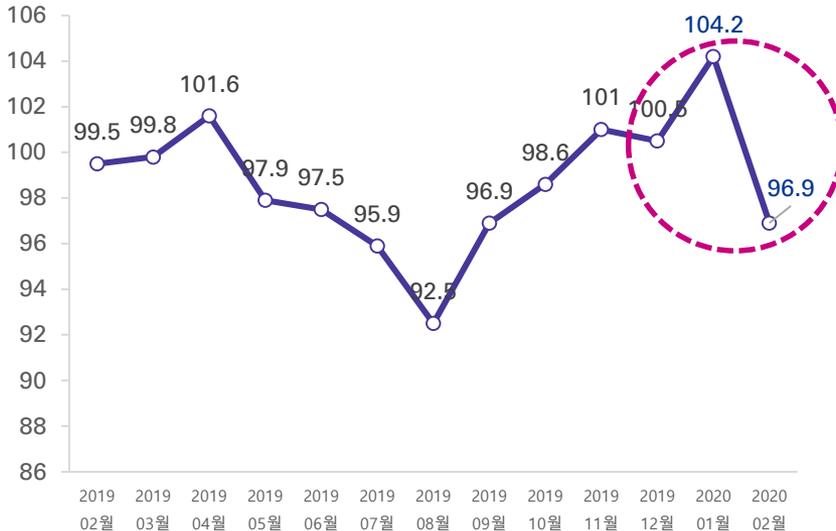
기업 구조조정 가능성 증가

- 경영 여건·환경의 악화로 일부 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 시 이러한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가계》 코로나19로 국내 가계소비심리 급격히 위축

코로나19 이전 국내 소비심리지수는 개선되는 추세로 '20년 1월 104.2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0년 2월 96.9를 기록(전월 대비 7.3p 하락)하여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양상임. 코로나19 장기화 시 취약층 및 자영업자 경제적 부담 가중,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증가 가능

소비자심리지수(CCSI) 추이



**“코로나19 발발 이후인 2020년 2월
소비자 소비심리지수는
96.9로 전월대비 7.3p 하락”**

Source: 한국은행,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소비자심리지수(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 CCSI)가 100보다 클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기대심리가 과거(2003년~전년 12월)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나타내고, 100보다 작을 경우에는 비관적임을 의미

코로나19 장기화 시 가계 부문 영향도 점검

역대 최대 규모의 가계부채가 부담으로 작용

- 1,500조 원에 가계부채 규모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 부분은 부동산 관련 대출임
- 경제활동 위축이 심화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위기가 실물로 전이 시,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건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가계 채무상환 어려움이 심화될 가능성 존재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심화

-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매출감소·임대료 지급에 대한 어려움 심화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가계 소득 감소 현실화 가능성 존재

- 기업 구조조정, 계약·일용직 수요에 대한 감소 등으로 실업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이는 가계 수입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음

Contents

	Page
I.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거시경제 주요 현안	3
II.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거시경제 영향 및 파급효과	13
III. 코로나19 대응 방향 가이드	21

정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및 2차 추경 가능성 점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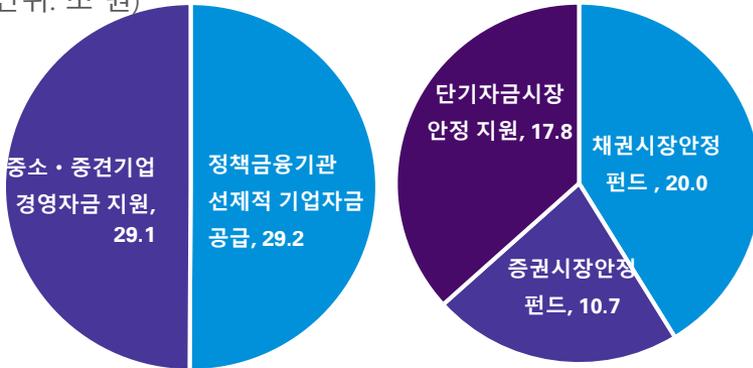
정부는 3월 24일 100조 원 규모로 자금애로 해소와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확대'를 발표함.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1차 추경('20.3.18)에 이어 2차 추경이 논의되는 가운데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에 방점을 둔 재정정책 동반이 필요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 원+ @

기업자금지원: 58.3조 원

금융시장 안정: 41.8조 원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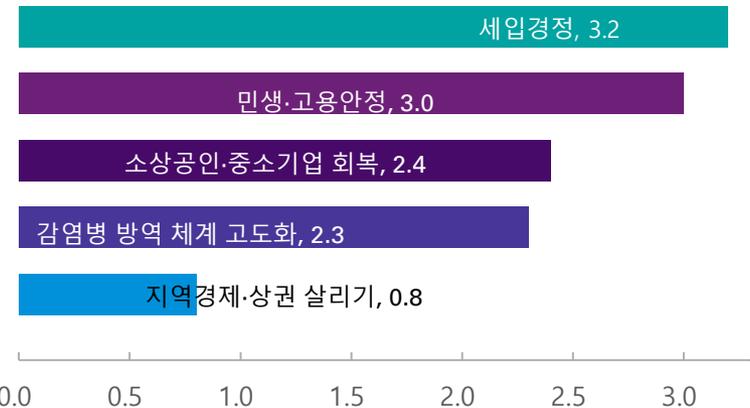


- 1.5% 시중은행 대출, 전금융권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4월 1일부터 시행
- 일정금액 이하 보증에 대한 신보 보증대상 업종 확대

- 빠 르 면 '20.4.2 일 부 터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한 회사채 매입 예정
- '20.3.25 7,600 억 원 증 권 유관기관 증시안정펀드 출범
- '20.3.24~3.26 일 중 증 권 사 에 3.5조 원 단기 유동성 공급

'20.3.18 코로나19 관련 슈퍼 추경 11조 7천억 원 편성, 이중 적자국채로 10조 3천억원 충당

(단위: 조 원)



- 총선 이후 2차 추경 편성 논의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
- 2차 추경 규모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지원, 코로나19 종식 이후 소비 진작책 등 경기 부양 대책, 재난소득 포함여부 및 세입경정 반영 규모에 따라 약 10조 원 초과 가능
- 2차 추경 편성 시 세율인상 또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며, 기업, 산업, 투자활동을 복돋을 수 있는 추경이 필요함

기업》 거시경제 모니터링 및 장·단기 대응 방향 모색

기업은 단기적으로 현금흐름 관리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 및 비대면 업무·서비스 강화에 집중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응 시스템 구축, 기업 핵심 사업에 집중 및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코로나 이후의 비즈니스 기회를 준비해야 함

단기적 차원의 기업 대응

Step 1 현금흐름 최적화 및 관리 강화

- 기존 자금조달 방안 재점검 및 절세방안을 검토하고,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여 장기적 자금조달 및 운영자금 계획 수립·보완
- 정부의 기업 지원 계획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부의 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활용

Step 2 리스크 요인 사전점검

- 기업의 비상경영체제(Business Continuity Plan, BCP) 가동 및 기존 비상대응체계의 재점검
- 기업 밸류체인별 리스크 요인 사전점검 및 단계별 대응방안 수립
- 업무수행 지속방안 수립 및 기업 내 감염관리, 감염자 발생 시 대처방안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예방과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최신 이슈를 모니터링

Step 3 비대면 업무·서비스에 대한 집중·강화

- 코로나19 장기화 시, 거리두기 운동, 외출자제 등으로 인한 매출 타격을 상쇄하기 위해 비대면을 통한 상품·서비스 채널에 집중
- 재택근무를 위한 효율적인 업무 분배 및 커뮤니케이션 방안 마련

장기적 차원의 기업 대응

Step 1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칠 영향 분석 및 장기적 대응 계획 수립
- 장기적인 측면에서 업무 수행을 위한 핵심 인력·기술 등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요건 파악·대체요건 마련
-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대안적 해외 신규 벤더를 개발·모색 및 공급망 다각화
- 외부 환경 및 변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별 비상대응 방안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효율화

Step 2 수익성 위주 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

- 각 사업 부문별 중요도·잠재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고,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현금흐름·수익창출 위주로 효율적으로 재편
- 기업 생존에 필요한 핵심사업에 대한 집중 및 긴급하지 않은 신규사업에 대한 연기·재검토를 통한 사업계획 수정

Step 3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준비

-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코로나19와 같은 문제가 상시 발생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유망한 사업 분야에 대한 분석·모니터링
- 미래 지향적으로 코로나 이후 달라질 소비행태, 트렌드 변화 등으로 인해 창출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위한 사전준비 및 사업방식 전환

Business Contacts

Industry Leader

금융산업

조원덕

부대표

T: 02-2112-0215

E: wcho@kr.kpmg.com

유통·소비재산업

신장훈

부대표

T: 02-2112-0808

E: jshin@kr.kpmg.com

전자·정보통신·반도체산업

양승열

부대표

T: 02-2112-0330

E: seungyeoulyang@kr.kpmg.com

자동차산업

위승훈

부대표

T: 02-2112-0620

E: swi@kr.kpmg.com

제조·건설산업

변영훈

부대표

T: 02-2112-0506

E: ybyun@kr.kpmg.com

Advisory

Strategy Consulting

이동석

전무

T: 02-2112-7954

E: dongseoklee@kr.kpmg.com

윤권현

상무

T: 02-2112-7495

E: kyoona@kr.kpmg.com

Management Consulting

장지수

부대표

T: 02-2112-7577

E: jjang@kr.kpmg.com

박상원

전무

T: 02-2112-7012

E: sangweonpark@kr.kpmg.com

kr.kpmg.com

© 2020 KPMG Samjong KPM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